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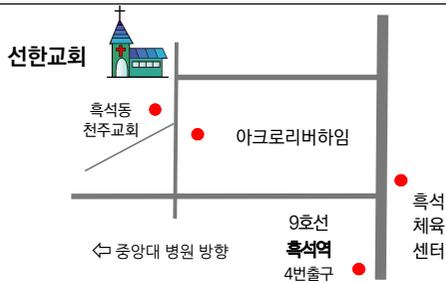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3장	
교 독 문	교독문 5번 (시편 8편)	
찬 양 과 경 배	585장 (통일찬송가 384장)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5장 5~15절	
설 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김기호 서창덕 조홍식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요 일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이용재 집사	
	말 씬	[요한계시록 2장] (계1:9-20) 첫 번째 환상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롬8:31-39)		임춘배 목사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 대 심 방 기간: 2월10일 ~ 3월8일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제 직 헌 신 예 배 다음주일(23일) 오후예배는 제직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 3. 부 서 명 칭 변 경 각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마리아 - 마리아 / 2마리아 - 루디아
1남전도회 - 요셉 / 2남전도회 - 여호수아 | |
| 4. 떡 제 공 오늘은 이태수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

2020년 성경강론 범위						
2/16	2/17	2/18	2/19	2/20	2/21	2/22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2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한주간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	---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통 342장)

본문 : 룻기 1장 15~18절

말씀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흉년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징벌을 피해 달아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고백은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만 먹고살겠다고 도망을 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엘리멜렉이 ‘그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이 일 때문이라고 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론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십년을 버티다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 합니다. 며느리들에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엔 남편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 다음 시동생을 통해 씨를 얻는 시형제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렇게 해 줄 아들이 없으니 더 이상 베풀 호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라는 시어머니의 충고는 며느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습니다. 오르바는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반면 룻은 고집스럽게 거부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엔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다는 묘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 족속 여인의 입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장자의 이름만 기록되는 곳에 5명의 여인이 기록돼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룻이죠. 구속사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룻의 희생 때문에 족보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먼 타향으로 가야 하는 희생만 가득한 길에 발을 내디뎠던 룻의 고백을 우리가 해 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요일5:5-15)

서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수 있습니다.

본론

1.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 (1)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성부와 성령의 증거(6-9)
- (2) 믿어야 하는 이유: ①자기안에 증거가 있게됨 ②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됨(10)
- (3) 믿을 때 주어지는 결과: ①영생을 얻게 됨(10-13) ②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됨(14,15)

2. 교훈

- (1)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 (2) 믿을 때 내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된다.
- (3) 믿는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하는 바를 허락하신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기도응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헌 금 위 원	김기호 서창덕 조홍식	김기호 서창덕 조홍식
오후예배 기도	이용재 집사	제직헌신예배

매일 성경 강독

모압에 대한 예언

날짜 : 2월 17일

찬양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 통일 찬송가 513장)
통독	예레미야 48장
본문 내용	본장은 바벨론을 통하여 모압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술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물질적 풍요로 교만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모압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심판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모압의 멸망과 함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본장에 나타난 모압의 첫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이다. 모압은 유리한 지역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와 비교적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은혜를 누렸으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은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모압의 두번째 죄는 교만이다. 모압은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풍요로 인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의 본장은 모압 도시들의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를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모압 파멸의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중반부(11-35절) 그리고 모압이 당할 심판과 수치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구원을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36-47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열방을 향한 예언(모압)</p> <p>(1) 1-47절: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며 그 이유가 (그모스)우상숭배와 물질적 풍요에 기인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참담한 결과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모압의 회복도 함께 예언하며 소망을 줌</p> <p>(2) 우상숭배와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들로 개인과 민족과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첩경이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형태의 우상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권력이나 명예 또는 재물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p>
핵심 단어	11절. 번치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지니는 뱀새가 번치 않았음을 가리킨다. 즉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교만되이 스스로 안심했던 모압의 죄악성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밀알 신앙을 지닌 제자”

찬양과 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94/통 102)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의 책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알려진 용어입니다. 육지에 사는 펭귄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이 많습니다. 펭귄에게 바다는 먹잇감이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이 때문에 펭귄 우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는데, 이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 들면 다른 펭귄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듭니다. 처음 뛰어든 펭귄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펭귄들의 참여를 유발해 상황을 바꾸어 갑니다. 이처럼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 또는 도전자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위기가 될 상황임에도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 용감하게 도전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구성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퍼스트 펭귄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 적용해 본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즉 ‘밀알 신앙’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p> <p>내가 ‘퍼스트 펭귄’처럼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12:20~36
묵상포인트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의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주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때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십자가 길은 참된 기쁨과 생명과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길을 외면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음을 아시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무엇에 비유해 말씀하셨나요?(23-24절)
적용하기	죽음으로 열매 맺는 밀알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희생의 삶을 산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의 밀알 되신 예수님의 영성을 제게 부어 주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밀알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이웃에게 풍성히 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 통일 찬송가 91장)
통독	예레미야 52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의 현실적 패망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즉 예루살렘의 함락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유다 공동체에 확산된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의 패망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9절)와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중반부(10-27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의 수와 이스라엘의 미래적 소망을 밝히고 있는 후반부(28-34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예루살렘의 멸망과 이후의 사건들</p> <p>(1) 본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결론이자 역사적 부록에 해당됨(왕하24:18-25:30의 내용)</p> <p>(2) 1-34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당시의 경황을 보도함. 예루살렘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 기물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노략 당했으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처형당함. 끝으로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석방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함</p> <p>(3)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p>
핵심 단어	2절.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웠으며 선지자 우리야도 살해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 통일 찬송가 487장)
통독	예레미야 49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했던 이 나라들은 정치적 동기에 근거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이기도 했고, 가끔 이스라엘의 고난을 조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기도 했던 민족들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보응자가 되시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본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1-6절),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7-22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 선언(23-27절), 게달과 하술에 대한 심판 선언(28-33절), 엘람에 대한 심판 선언(34-3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통하여 언약 백성인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열방을 향한 예언(기타)</p> <p>(1) 1-6절: 암몬에 대한 예언.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진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도가 황폐화되며 우상 말감과 그 제사장들 및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암몬의 회복도 약속함</p> <p>(2) 7-22절: 에돔에 대한 예언.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에돔의 멸망이 매우 철저할 것임과 심판 이후의 에돔의 비천한 상태에 대해 예언한 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함</p> <p>(3) 23-27절: 다메섹에 대한 예언.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숭배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힘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음</p> <p>(4) 28-33절: 게달과 하술에 대한 예언.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사이로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활을 잘 쓰기로 유명함)이었고 하술은 거주지가 불분명하나 게달 민족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유목 민족으로 추정됨. 이 두민족의 심판 이유도 불분명함</p> <p>(5) 34-39절: 엘람에 대한 예언. 엘람은 쎜의 아들 엘람의 후손으로 티그리스 하류에 있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함. 이웃종족들에게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것이 심판의 이유로 보임</p> <p>(6)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이유가 육적 쾌락에 치우치고,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하여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p>
핵심 단어	1절. 말감. 이는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으로 몰렉이나 밀곰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참조, 습1:5).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 통일찬송가 434장)
통독	예레미야 50장
본문 내용	본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명시된 바벨론 역시 심각한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참조, 사45:1)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도구로 사용하신다. 비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이미 멸망의 현실에 처하여 어떠한 희망적 요소도 배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오묘한 섭리와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황적 섭리를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16절)와 예루살렘의 회복 및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과 그 원인에 대한 예언을 서술하고 있는 중반부(17-32절) 그리고 재차 바벨론을 향한 심판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33-46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통하여 본장은 지금까지의 이방에 관한 심판 예언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열방을 향한 예언(바벨론)</p> <p>(1) 1-46절: 바벨론은 북방의 큰 연합국에 의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반면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본국으로 귀환하여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함.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압제 때문임</p> <p>(2)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온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요 섭리자 이신 것과 하나님께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p>
핵심 단어	7절. 의로운 처소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이 돌아갈 영원한 땅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92장 / 통일찬송가 492장)
통독	예레미야 51장
본문 내용	본장은 전장에 이어서 바벨론 심판의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전장에서 설명되었던 유다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생략되고 오직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언급하는 부분(1-14절),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묘사하는 부분(15-19절), 여호와와 진노와 그 결구를 다루는 부분(20-26절), 바벨론을 적대하는 모든 열방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27-32절), 바벨론에 적대하는 유다의 불평과 하나님의 보수하심을 묘사하는 부분(33-40절), 바벨론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 부분(41-49절),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향한 여호와와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50-53절),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54-58절), 결론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 주는 부분(59-64절)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해보기	
1	<p>열방을 향한 예언(종결)</p> <p>(1) 1-44절: 하나님께서는 메대 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우상숭배와 시온에 행한대로 보응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바벨론에 대한 애가를 부름</p> <p>(2) 45-53절: 포로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할 때에 속히 바벨론을 탈출하여 구원을 얻고 탈출즉시 멸망할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함</p> <p>(3) 54-64절: 바벨론 심판 예언을 기록한 책을 사신으로 바벨론에 가는 스마야에게 주어 바벨론에서 선포케 하고 그 책을 돌에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함</p> <p>(4) 죄로 인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미련을 두지 말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p>
핵심 단어	2절. 키질하여. 공중에 흩어 부리거나 퍼지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는 정화나 응징을 목적으로 분산시켜 버리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